

중앙아시아에서 드리는 2월 소식

지난 겨울은 12월까지의 겨울이 안을 것같이 따스한 날씨였는데, 1~2월에는 영하 20~30도의 기온이 계속되어서 혹독하게 추운 겨울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춥고 길었던 겨울도 이제 봄기운에 사람들의 마음에도 따스함이 찾아드는 것 같습니다. 올해 시작한 노숙인들을 위한 사역이 현지 교회와 좋은 팀을 이루어 진행 과정에 보람도 크고, 열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로 모든 분들에게 영육간에 따스함에 더욱 넘치시기를 바라면서 그간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1. 신약 주석 번역 작업 감수 작업이 끝난 사도행전은 이제 마지막 검토 작업과 편집 디자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검토작업이 끝나면 일일이 스캔을 뜨고, 키르기즈어로 수정된 부분을 타이핑해서 미국에 있는 편집작업자인 엘레인에게 PDF 파일로 보내게 됩니다. 최종안이 디자인 되면, 다시 받아서 인쇄소로 보내면, 약 2~3주만에 출간이 됩니다. 출간이 되면 현재 연합신학교의 도서 창고에 공간이 없어서, 제가 섬기고 있는 새언약교회의 컨테이너 창고에 보관하며 관리하게 됩니다. 이번에 작업하고 있는 사도행전은 13권 주석 시리즈 가운데 7권째입니다. 이제 나머지 6권은 비교적 얇아서 내용으로 본다면 65%정도가 완성된 상황입니다. 지난 가을에 저희 번역팀에 합류한 쟈이쉬 교수는 지금 옥중서신서를 감수하고 있습니다. 처음 합류하여 감수 작업과 관련된 현지 용어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현지 번역자와 함께 내용들을 세밀하게 맞추어 가야 하기 때문에 집중력과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번역 수준이 있으면서 저희와 함께한 경력있는 현지 사역자들이 몇 명이 있지만, 건강문제와 자신들의 사역으로 번역사역에 틈틈이 시간을 내기가 수월하지 않습니다. 이 사역에 함께 하는 귀한 현지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거리에서 작업하고 있는 엘레인과 의사소통, 그리고 새로 합류한 쟈이쉬 선생님의 감수 작업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한국어 교실(드림 아카데미) 한국어교실인 드림아카데미는 이제 4월에 있는 한국어능력시험(TOPIC)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9월 새학기에 기억, 니은부터 시작한 학생들이라서, 1~2급 시험을 준비하고 있고, 중, 고급반 학생들은 2~4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한국에 대한 막연한 동경과 꿈으로 시작되는 한국어 공부이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몇몇 학생들은 구체적으로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졸업후 한국 대학으로 연결된 학생들도 있고, 현지 대학의 한국어과에 진학하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중, 고등학교에서 초급, 중급 수준의 한국어를 공부하기 때문에 대학에 진학할 때에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지난 구정 에는 한국문화 체험으로 윷놀이, 제기차기, 한복 입어보기, 투호 던지기 등으로 함께 하루를 지냈습니다. 기대 이상으로 관심이 많아, 조별로 돌아가며 진행을 했는데, 익숙하지 않은 놀이에도 열정을 가지고 함께 하는 학생들과 진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장소는 나판 선생님네 교회에서 했는데, 이 교회에 다니는 학생들도 한국어 교실에 많이 다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울리면서 신앙을 갖게 되는 학생들이 비교적 많은 편입니다. 가치관과 세계관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에 이들의 삶에 진리에 대한 꿈과 소망이 함께 자라기를 기대하며 사역하고 있습니다.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들과 이 한국어 교실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현지 교회 (새언약) 백뚜르 목사는 지난 가을 안수를 받은 후, 더욱 목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재정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별도의 직업을 포기하고 목회에 전념하기로 하고 시작한 사역이 이제 만 1년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교회가 종교성과 법무부에 등록이되어 있고, 예배당이 있는 터가 넓은 편이라서, 뒤쪽 길쪽의 한 부분을 자동차 경정비소에 세를 주어 매월 어느정도 고정적인 수입이 있어서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주로 젊은 부부들과 청년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유치부와 주일학교 아이들이 많은 편입니다. 교사와 리더를 할 만한 친구들은 주로 일터에서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지만, 주중에 한번 있는 소그룹 모임에 헌신하여 대체로 잘 모이고 있습니다. 백뚜르 목사는 아내 지아나가 연합신학교에서 교수요원으로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고, 주중에 모임이 많아서 입양한 아들(6세)과 세 딸(5세, 2세 쌍둥이)을 돌보는데 눈코뜰새 없이 시간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지아나 사모는 요즘 야간으로 목회학 석사과정을 하고 있어서 일과가 더욱 벅차 보입니다. 추운 겨울 동안 교회 행사들과 모임, 아이들을 돌보느라 헌신하고 있는 리더들과 사역자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노숙인들을 위한 사역

지난번에 말씀드린대로 노숙자들을 위한 사역을 시작한지 4개월이 되어갑니다. 처음에는 추운 겨울동안 따뜻한 숙식이 제공되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많은 사람들이(세 개의 쉼터에서 약 80여명)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몇 개월간 지속적인 방문과 지원이 되면서 노숙인들의 마음도 많이 열리고 저희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비쉬켈에 있는 센터는 희망의 집이라고 부르면서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분위기가 조성된 데에는 현지 목회자와 교회의 헌신적인 섬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공부와 기도모임이 진행되고 있고 40여명 중 16명 내외로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섬김 덕분에 노숙인들도 서로서로 도우며 아픈이들을 돌보는 등 가족같이 지내는 모습입니다. 안정된 숙식이 해결되면서 2차적인 필요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바로 의료지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픈이들이 많다보니 진료와 치료가 전방위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영하 30도에 달하는 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때에 실컷 없이 다니다가 동상에 걸린 사람들이 저희 센터로 들어왔는데 발가락을 다 자른 이도 있고 부분적으로 자른 이들도 있습니다. 손가락도 새카맣게 되었는데 저는 TV로만 보던 모습을 처음으로 직접 보며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에도 치아가 전혀 없이 지내는 이들도 있고요. 이곳의 열악한 의료환경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쉬운 방법으로 신체를 절단하거나 발치하는 경우이지요. 아무래도 치료를 받기가 어려운 사람들이라 보니 더욱 그런 형편입니다. 기본 진단과 피검사 X레이 등은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지만 치료를 위한 약이나 정밀 검사등은 현재 막연한 상황입니다. 현지 교회 알렉산드르 목사의 지극한 돌봄으로 감사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치료의 도움을 위해 손을 모으고 있습니다.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 가운데에는 불가피하게 알콜 중독자들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시설에는 알콜 중독자들이 따로 모여있고, 그들 가운데 오랜 설득과 격려로 상태가 호전되어 심리적으로나 실제적으로 회복이 된 친구들을 위한 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안정적이며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름들은 아무래도 따로 일반 집을 임대하여 지내면서 점차로 독립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현지 사역자가 이러한 과정에 대한 이해와 꿈을 가지고 사람들을 잘 인도하고 있어서 소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섬기는 알렉산드르 현지 사역자와 현지 교회 팀들, 그리고 이 과정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쉬켈 희망의 집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다음 소식에는 1시간 거리의 또꼬막 시에 있는 센터와 비쉬켈시 외곽에 있는 센터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역에 대한 마음을 주시고 시작하게 하신 것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과 기도 가운데 따스한 봄을 맞으며, 귀한 사역들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봄을 맞이합니다. 새로운 소식을 드릴 때까지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도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드립니다.

중앙아시아에서 정혜브론, 김엘레나 드림